



2021년 12월 19일(제1066호) **다림 제4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불편한 지리를 향하여”

임신을 해보신 자매님들은 임신 초기가 얼마나 예민하고 힘든 시기인지 아실 것입니다(물론 저는 모르지요). 몸이 새 생명을 잉태하면서, 기존의 습관에서 벗어나 온전히 새 생명, 아기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30년 살아온 습관을 포기하고 무조건 생활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찾아본 결과, 임신에 대해 몸이 보이는 반응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입덧, 변비, 메스꺼움, 피로 등 심하면 우울증도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 증상이 성모님께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은 오늘 그 몸으로 엘리사벳, 늦게 임신한 사촌 언니한테 가신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벳이 살던 고을인 아인 카렘은 성모님이 사시던 나자렛에서 120km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저도 예전 성지순례 때 다녀왔습니다만, 버스를 타고도 2시간은 족히 걸렸습니다.)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참 먼 거리를 가셨고, 게다가 거기서 석 달 가량 머무르셨다 합니다. 똑같이 임신한 몸으로 석 달이나 가사 도우미를 하신 것이지요.

보통 임신하신 여성분들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친정엄마 댁이나 집에서 꼭 머무르셔야 하죠. 그런데도 성모님은 자처해서 불편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전체 임신 기간의 1/3을 그렇게 보내신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봉사와 섬김은 가능하다.’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를 내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한가함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봉사, 줄 수 있었지만 주지 않았던 사랑...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겠다는 결심을 다지면서, 다가오는 성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우(베드로) 신부**  
**비룡(25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미카 5,1-4ㄱ

**회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 독 시** 히브 10,5-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루카 1,39-45

**영 성 제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열두 번째 시한

예전부터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 누가 용감히 나서서 그들에게 전교만 하면 종교를 수용할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신자들 10명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고, 5명은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모 김 대왕 대비는 아직 생존해 있으나, 여러 가지 고통으로 번민하여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려고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대왕 대비가 사망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왕은 건강하지만 왕위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들은 어느 날 밤에 회의를 열어 왕을 치우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의하였다 합니다.

왕은 19세 된 젊은이이지만 상당히 신중하고, 얼굴에 병으로 인한 흔적이 많이 있으나 코가 높고 얼굴이 못생기지 않았습니니다. 먼것번 왕비가 사망한 후, 15세 된 흥 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대신들인 조만영과 조인영은 아직 살아 있어서 대단한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인 2품 대신 김정이(즉 김정희) 판서는 아직 귀양에서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배반자 김여상(즉 김순성)은 아직 귀양살이를 하면서 첩과 함께 살아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많은 혹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포졸들과 관장들은 그를 미워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매질하면서 “이놈아 너는 유다스보다 더 악한 놈이다. 유다스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하거니와, 이놈아 너는 살려고 조선에 온 신부님들을 배반하여 죽였으니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엄히 꾸짖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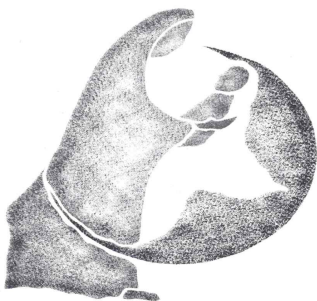
저는 아직 눈병이 낫지 않았고 그 동안 중병에 걸려 몹시 앓았으나, 요 사이는 회복되어 허약한 머리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으나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 일은 미미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묵 상

- 베아킬(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세상 속으로



설령 세상이  
나의 심장을 찌르고,  
아들을 잡는다 하여도,  
지금은 이렇게

세상 속으로 한발.  
  
그렇게  
하늘의 뜻이 한발  
세상 속으로.

상화이야기

참수형을 당하는 세례자 요한



이 장면의 전경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살로메가, 참수형을 당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는 모습이 보인다. 처형자는 쟁반에 머리를 놓고 있으며, 세례자 요한의 몸에서는 아직도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처형자의 오른쪽으로는 이 모습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인물들의 모습이 보이고, 마치 건물 실외의 광장 같은 곳으로 열린 공간이 보인다.



그림의 뒷부분

그림의 뒷부분에는 마치 터널처럼 깊게 그려진 실내 공간이 보이는데, 이 공간에서 연회가 행해지는 모습과 연회에서 쟁반의 머리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살로메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요청한 살로메의 모습은 그러나,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이 보이며, 교회 아치에 새겨진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모습과 최후의 만찬, 수난이 그려져 있다.

김은혜(벨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신신대 김인식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때: 12월 19일(주일) 10:00
- 성요셉(의무사) 성당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때: 12월 25일(토)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